

시중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

대출규제 강화·경기둔화 복합적으로 작용

지방은행 연체율 이미 1% 넘는 곳 ‘속출’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10%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농협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내렸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0.24%)·신한은행(0.23%)·

우리은행(0.21%)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은행들의 정기적인 연체채권 처리(매각·상각 등)로 연말에 낮아지고 연초에 다시 높아지는 계절성을 띤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2017년 1분기 0.24~0.41%이던 이들 5개 대형은행의 연체율이 2018년 1분기 0.18~0.37%로 낮아졌다가 올해 1분기 0.21~0.41%로 반등한 것이다.

은행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연

체율 상승은 대출규제 강화와 경기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의 비중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대출잔액이 늘수록 분모가 커져 수치는 낮아진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커져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도입되고, 자금의 용도 외 용용을 점검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출규제보다 최근의 경기둔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올해 1월 58(기준치 100)까지 떨어졌다가 2~4월 63~66으로 다소 회복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분석을 보면 자영업 경기 악화로 폐업이 늘

면서 서울의 상가점포가 지난해 8천개 가까이 감소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시중은행에선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연체율이 이미 1%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경제, 특히 자동차·조선·해운업이 직격탄을 맞은 곳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빠졌고, 이들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1분기에 다시 1%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체를 반듯이 실물경기 지표의 악화나 소득 양극화 등과 맞물릴 경우 자영업자, 저신용·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쌀 ‘풍광수도’ 경남 양산시에 첫 선

전남농협, 한달간 행사 다채

전남농협이 전남도와 함께 전남 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도’를 경남 양산시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6일 “전남도와 함께 전남 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도’를 하나로마트 양산점에서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경남 양산시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하나로마트 오픈과 함께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실 것을 예상해 양산시 소비자들에게 풍광수도 쌀 브랜드 노출효과와 충성도 등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10kg 쌀 1포를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햅쌀과 1마(1.5kg)을 증정해 양과 소비촉진을 함께 실시한다. 더불어 풍광수도 쌀 홍보를 위해 전문 판매도우미를 고용해 소비자에게 신동

진 단일품종과 상 등급 품광수도 쌀을 설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3~4일에는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영광통합RPC(마곡종합처리장)가 함께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떡메치기와 함께 3천명이 드실 수 있는 떡을 준비해 함께 나누고 떡메치기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풍광수도 샘플 쌀(500g)과 함께 홍보용 쇼퍼백을 증정했다. 향후 5만2천가구 15만2천명이 입주할 수 있는 양산 물금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양산점은 1천700평의 대형 규모로 지난달 30일 오픈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도와 함께 다음달까지 햅쌀판매와 온라인쇼퍼몰 판로 확대 및 대형 수도권 쌀 유통 판매장에서 소비자 만남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남을 대표하는 전국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자가주거비 13년 만에 하락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꼽히는 자가주거비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6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주거비 지수는 104.10(2015년=100)으로, 1년 전(104.12)보다 0.02% 하락했다. 자가주거비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06년 3월(-0.1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월 대비로 따져도 지난달 자가주거비 지수는 0.04% 떨어졌다. 하락세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역시 2005년 9월(-0.10%) 이후 보합 내지는 상승을 이어가다가 13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자가주거비는 자기 소유의 주택 거주자가 동일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했을 경우를 가정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예상금액을 뜻한다. 주거 관련 지출이 실제 가계 소비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1995년부터 작성 중이다. /연합뉴스



“재활용품 모아 불우이웃 도와요”

광주 동구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3일 동구청 광장에서 녹색생활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헌옷·이불 등 ‘재활용품 수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모인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관내 소외된 계층을 돕는 /광주동구제공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대폭 확대

광주국세청, 65만7천 가구…이달 신청받아

“5월 근로·자녀장려금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6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지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4만9천 가구가 증가한 65만7천 가구에 달한다. 이는 올해 단독 가구 연령 요건 폐지 등 제도확대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광주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에 받아 심사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원할 경우 홈택스(인터넷·모바일)나 ARS 전화(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올해는 광주국세청 전용 콜센터(062-236-7199)도 신설됐다.

광주국세청은 신청기간 중 놓여준 거주 고령층의 신청 편의를 위해 34개 시·군과 협업체 381개 읍·면사무소에 ‘ARS 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분증, 안내문, 통장을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협조공무원이 ARS 신청을 도와준다고 광주국세청은 설명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광주은행 올해 지점 점포 5곳 늘려

광주은행이 올해 지점 점포 5곳을 늘린다. 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서울·광주·여수·순천·광양에 각 1곳씩, 점포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은 오는 9월 마곡지구, 광주는 7월에 서구 광천동 kbc 신사옥에 점포를 개설한다. 광주은행이 kbc 신사옥에 점포를 개설하면 도로 건너편 유스퀘어에 입점한 신세계지점과 인접하게 된다. 여수·순천·광양은 현재 점포 장소를 물색 중이다. 광주 서구 서동 kbc 현 사옥에 입주해

있는 서동지점은 인근 건물로 이전을 추진한다. 광주은행 총 점포는 142곳에서 147곳이 된다. 수도권 영업본부의 점포 수는 31곳에서 32개가 돼 전체 점포의 21.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JB 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호남권을 지역 기반으로 성장했고 현재도 이 연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연고 지역에서 위상을 더욱 공고하는 일에 우리의 역량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광주상의, 공공·민간 전자입찰 컨설팅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여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자입찰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오는 10월까지로 지역 중소기업 22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 전자입찰 참여 사전 준비 내용, 입찰 공고 분석 및 입찰금액 산정 지원 등을

전문가들이 업체를 2~3차례 방문해 컨설팅한다. 전문가컨설팅 비용에 대한 업체 부담은 없다. 참여 희망 업체는 참가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평가 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 등을 제출(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 이광호 과장 (062-350-5893·Fax (062-350-5899) 하연 된다. /박은성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폭풍이나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달팽이 사육장(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급 월 270만원 예상

(+1층 농장 임대비)

땅 + 건물 + 태양광

(선로 걱정 없는 한국형)

2년 6개월이면
현금 투자 회수 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복면 잔여분 5기
- 영광 홍농읍 잔여분 3기
- 2019년 10월 준공 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